

## 출판문화계의...보릿고개...타령...



3월입니다. 우수는 이미 지났고, 5일은 경칩驚蟄입니다. 흔히들 날씨가 따뜻해져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놀라 뛰쳐나온다는 말로 경칩을 얘기하지만, 사전적 의미만으로 보아도 개구리가 놀라는 것은 '대륙에서 남하하는 한랭전선이 통과하며 천둥을 만들어 내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칩은 풀과 나무의 싹이 돋고, 얼었던 흙이 녹으면서 사람이 교감하는 절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경칩 무렵 흙일을 하면 일년 내내 탈이 없다고 하여 담을 쌓고 벽을 바르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믿음, 축적된 경험칙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판계에 있어 3월은 '독자와의 교감이 실종되는 시기'로 인식돼 있습니다. 이른바 신학기 증후군입니다. 등록금 내라, 교복 맞춰 입히라, 교재 사라,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라, 학부모 학생 모두 교양적인 책읽기에 투자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환경이 낳은 '판매부수 절대감소'가 통제로 입증돼 있는 탓입니다. 좀 긴장이 누그러지는 쪽은 출판사 영업자들입니다. 책 판매에 따른 수금액이 좀 적어도 '신학기철이니까요'라고 둘러댈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공천자 명단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그 기간대로, 선거 후에는 예년 같은 당락 후유증 그대로 한반도 전역이 달궈질 것입니다. 이래서 출판사 대표들 입에서는 '올해는 3, 4, 5월 모두 글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업자들은 올 봄 내내 핑계를 댈 수 있겠다는 '헛꿈'을 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술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의 방향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기자는 이런 측면이 한국출판과 독서계와 교육계의 지병持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보지요. 강남의 한 고등학교는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에게 대규모 숙제를 내주었는데, 그 숙제의 대부분에는 도서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문학 자연과학 정치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이 대목을 보자면, 우리 사회가 시민 한 명을 길러내는 데 고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출판계와 교육계가 윈윈 전략을 펴는 데 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년 중 독서 열기가 가장 낮은 어느 시점이 있다면 그 시기의 정황에 거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많은 출판인들에게 초·중등 선생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학생에게 권하고 싶은 목록과 책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증책을 맡아 교육시스템 개편에 골몰하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리에게도 묻고 싶은 말입니다. 학생은 곧 소비자이면서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체인데도 사실상 독서교육에 관한 한 큰 열개만을 그리는 데 열중해 왔다는 점은 출판계 인사들이 '춘궁기'를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독서와 출판에 관한 한 이른바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판문화계와 독자가 웃으면서 경칩 절기를 맞을 수 있으려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정보에 의해 산출되는 양질의 텍스트를 독자에게 전해 주는 로터리식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릿고개 타령도 없어질 터입니다.

2004년 3월 일

임동현·본지 주간